



“김병기 아들 ‘국정원 특채’ 홍장원 개입”

본지 국정원 소식통 통해 확인
당시 기조실장까지 압력 행사
특채 시기도 2017년 3월 아닌
2016년 10월로 새 사실 드러나

2018년 7월에 불거졌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국가정보원 특채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동안 알려진 것은 ‘김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형으로 국정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018년 7월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을) 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의 원칙 사퇴는 물론 감옥에도 가겠다”라면서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본지가 복수의 국정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6년 10월에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과 기조실장이 압력을 행사해 탈락자(김 의원 아들)를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7년 3월에 채용했다는 기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2017년 3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정국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2016년 총선에 당선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 아들의 특별 임용을 반대하던 검찰실장이 2016년 5월에 물러나자, 탈락자인 김 의원 아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다시 추진



“반국가세력 사기탄핵 규탄” 연대생 시국선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10일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들(대표 박준영·전기전자공학과 3)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앞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연세대 내에는 분명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며 “표현되지 못했던 목소리를 모아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국선언은 학생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 의원이 기무사를 압박해 아들과 관련한 세평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임용했다는 소문도 퍼다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사원 임용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어 “당시 검찰실장과 홍장원은 이 문제로 상당히 다투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실장은 홍장원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다.

한겨레는 2016년 총선에 당선된 김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 조사에서 떨어진 자신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2018년 7월10

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탈락한 이유는 세평과 신체적 문제로 기억한다”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 임용과 관련해 많은 말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보도하지하기로 했다.

홍장원(당시 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0월27일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때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의 아들도 함께 갔다. 그때, 국정원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사람들이 북한군 관련

한 협의가 있었다.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장 사본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어서 이 메모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2013년)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 대상에 국정원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들 채용과 관련한 본지의 질문을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동일한 사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A-WEB 고문단 ‘요지경’ 언론사 간부 대거 포진

2014년 간담회 참석 명단 확산
12명 중 언론사 간부 6명 포함
언론인 선거자문 부적절 논란
부정선거 ‘침묵 카르텔’ 의혹

A-WEB(세계선거거관협의회)에 대한 국제 부정선거 범죄 카르텔 비판이 일파 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A-WEB 고문단에 주력 언론사 소속 언론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WEB의 실체를 보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언론계의 실체가 A-WEB과 해당 언론인들 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2014년 5월20일 발행된 ‘A-WEB 고문단 조건간담회’ 목록을 보면 참석자는 총 12명이다.

최경환(경제부총리)·김부성·박지원·유인태(국회의원)·권태선(허핑턴포스트 코리아CEO)·김민배(TV조선 보도본부장)·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이계성(한 국일보 편집국장)·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최영훈(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 부정선거론은 특히 주류 언론에서 ‘음모론’으로 취급을 받아 왔다. 이곳에는 A-WEB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고문단 위촉장까지 받은 이들은 △A-WEB 업무 내역 △A-WEB 예산편성 및 인력충원 문제 △A-WEB 사업활동 등의 언론 보도 홍보 △사무처 사업계획 이행과 지원 내역 등을 논의했다. 인사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상세한 운영 내역에 해당 언론인과 정치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거전문가도 아닌 언론인이 선거관리 협의회 자문단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한 적성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 국내 주요 언론은 A-WEB의 국제카르텔 부정선거 의혹 보도량·보도내용 등에 있어서 ‘침묵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일동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해 왔다.

이들의 일방적 ‘선관위’ ‘대법원’ 입장 받아쓰기도 ‘부정선거자문’들의 주된 문제 제기 중 하나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회원국 중 A-WEB과 과반 가까이 중첩되는 세계선거거관협의회 총회에 다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판결 중립 논란이 분적이 있다. 언론과 법관까지 A-WEB 유착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A-WEB은 중국의 일대일(一帶一路)로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선거 부정 네트워크 구축에서 ‘민주주의 전환기’라는 명목으로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권력 쟁투를 시도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기구다.

외교는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민간기구이며 세계 각국의 선거 정보·지식·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2014년 4월 인천 송도에 설립된 A-WEB은 109개국에 119개의 선거기관을 회원으로 두었다.

주로 전자 투표표기 등 국내산 전자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사용해 콩고민주공화국(DRC)·키르기스스탄·이라크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투표기 등 수출을 주선해 왔다.

문제는 이들 나라마다 한국산 전자투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으며 일부 국가는 선거 직후 유혈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들은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서버 또는 전자투표기)이 있었다”는 공감대와 비판이 잇달았다.

A-WEB 관련 누적된 비판이 재확인한 건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약 사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부터다. 변호인단은 A-WEB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현재에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증명을 위한 증거 채택 요구를 대거 기각하고 있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가는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ang@skyedaily.com

LG엔솔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운영

제주 ‘한림단지’ 운영사로 선정
연 23만MWh 청정 에너지 생산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일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림해상풍력단

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해상풍력단지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두 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 5.5km²에 5.56MW 풍력 터빈 18기를 운영한다. 연 평균 23만 4913MWh의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국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운영을 맡

게 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제주도 내 첫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의 전력중개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입찰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기술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림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하루 전 및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의 입찰 제도에 참여해 전력 거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까다로운

해상풍력 사업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운영 능력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환경필 EaaS(Energy-as-a-Service)사업 담당은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국방의무 필히 입대한 당신의 아들이 학살자로 매도 당한다면...

44년 만에 빛 본

5·18 출동 계엄군의 육필 수기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185공병대대 자필 체험담

5·18 역사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진실 보고서

80년 5·18 충청작전 투입 185공병대대 장병 증언집

현재의 시간

우리가 그때 광주에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사태 사건 현장에 투입된 185공병대대 장병 73명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심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최종원 편저 | 468쪽 | 25,000원

“눈알 빠지는 고통 속에 돌아서는데 육중한 것이 등에 가해져 거꾸러졌다. 간신히 일어나 차에 오르려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M16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 185공병대대 참모부 병사 성명 미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최루탄 몇 발뿐이었다. 실탄 없는 총은 동동이 만도 못했다.”
- 185공병대대 3중대 병장 정철호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자가 만든다”
- 지만원 박사

스카이 데일리 구입 문의 02)522-6595